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 미술의 향연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올해는 광주와 전남에서 대규모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어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2018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메인 전시관 2곳, 티켓 한장으로 보세요

비엔날레 전시관·문화전당 다른 날 입장 가능
옛 광주국군병원·무각사·시민회관 등 무료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지난 9월 개막한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는 43개국 165명이 작업한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두 곳이 메인 전시관으로 쓰이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GB 커미션' 등이 옛 광주국군병원 등 광주 곳곳에서 열림에 따라 동선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메인 전시관은 티켓 한장으로 다른 날에도 관람하는 게 가능하니 여유가 있다면 무리하게 하루에 메인 전시관 두 곳을 관람하기보다는 무료로 볼 수 있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GB 커미션을 분배, 이를 동안 차분히 둘러보는 것도 좋다. 또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한 후 인상깊었던 작품을 다시 관람하는 것도 의미있다. 용봉동 전시관은 무후로 운영되며 문화전당은 추석 연휴 기간 관람 편의를 위해 기존 휴관 일인 월요일 문을 열고 대신 목요일 휴관한다.

◇'경계'를 이야기하는 주제전 7개의 주제전은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인터넷 격차, 젠더와 인종 등 보이지 않는 않지만 현대 사회 들어 더 '경고 해지'는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는 '영상 작품'들이 많이 차분히 둘러보면 훨씬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김수근이 설계한 서울 세운상가의 모습을 통해 식민주의, 전쟁, 독재의 영향을 살핀 서현석의 '잃어버린 항해' 등이 눈길을 끈다.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색션은 '난민'과 '이주' '국경' 등의 문제를 조명한다. 호 추 니엔의 '이름 없는 존재&이름', 할릴 알티네데가 시리아 난민 위기를 다룬 '우주 난민'과 '피프테 항공사', 톰 니콜슨과 그레이스 삼보가 협업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등도 화제작이다.

문화전당 전시는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1995년 크초의 '잃어버리기 위하여' 등 역대 비엔날레 참여작들도 만날 수 있다.

9·11 이후 심화된 감시와 시민권의 문제를 손꼽은 크기의 사진 수만장으로 구성된 하산 엘라히의 작품 '수많은 작은 형제'

들, 수천개의 플라스틱 튜브를 활용한 설치구조물을 통해 난비와 과잉의 문제를 드러낸 타라 노노반의 작품, 나라 요시토모의 신작 등도 눈길을 끌었다. 김만석&김성우&백종욱이 기획한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는 한국 작가 35명을 초대에 역동적인 전시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으며 '북한미술: 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는 북한 미술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집체화를 비롯해 산수화 등 다채로운 조선회화를 선보여 인기가 높다.

◇옛 국군광주병원 'GB커미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를 만나는 옛 광주국군병원에서는 3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중이다.

북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카테르 아티아의 작품 '영원한 지금'을 만난다. 창살이 쳐진 각각의 병실에는 천정까지 닿을 듯한 나무 기둥들이 서 있다. 작가는 광주 지역의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기둥들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듯, 균열된 부분을 금속으로 묶어 두었다. 아파작품 위라세타론의 작품 '별자리'는 대강당을 비롯해 병실, 이발소, 당구장 등 공간을 이동하며 만나는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곳곳에 설치한 조명과 소리, 영상과 오브제를 만난다. 병원 본관 옆 붉은 벽

돌의 '국광교회'에서는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표식)'이 전시돼 있다. 병원에서 떨어진 수십 개의 거울로 만든 설치작품이다. 관람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사전에 투어 시간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한편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가 광주극장에서 촬영한 신작 '별들의 전쟁' 문화전당에서 전시중이며 카테르 아티아의 또다른 작품 '영원한 경계들'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함께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팔레 드 도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기획한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는 광주시민회관(24일 휴무)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최윤-타라크 키스완슨 등 11명의 작가 작품들은 흥미롭다.

헬싱키국제아트스트 프로그램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23-25일 휴관)에서 이매리, 이매리, 알리나 바이오나 등 핀란드와 한국작가들을 초청해 작품을 선보인다. 필리핀 현대미술 네트워크의 '하하우스' 전이 열리는 이강하미술관과 핫 미술관에서 23-26일까지 문을 닫는다. www.gwangjubiennale.org/gb/exhibition/viewinfo.do. 문의 062-608-43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파격·가상현실 3대가 즐기는 수목의 매력

목포·진도 일원서 10월까지
中·미국 등 15개국 312작품
첨단 매체로 수목 경계 확장
전통시장·학교·광장서도
수목놀이교실·수다방 즐겨



신태수 작 '삼'

추석 연휴기간 가족 3대가 즐길 수 있는 국내 첫 전통회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다. 아버지는 친숙한 전통 산수화를, 아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파격의 수목, 손자는 가상현실(VR) 속 수목놀이를 즐길 수 있다. 친숙한 수목작품 감상으로 삶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힐링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과 현대 수목의 콜라보= 수목비엔날레는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10월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중국·일본·프랑스·미국 등 세계 15개국 266명의 작가가 312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진도에서는 '전통수목의 재발견'을, 목포에서는 '현대수목의 재창조'를 소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주 전시관인 비엔날레1관(목포문화예술회관)에 들어서면 미디어아트 분야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이 수목 콜라보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이남 작가의 '수목의 빛'을 만난다. 전통의 수목과 디지털의 만남을 통해 목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고자 했다.

마주하는 작품은 박종갑 경희대 교수의 '바람'이다. 모퉁이 아니라 손과 빗자루를, 한지가 아니라 나무를 사용하는 재료의 파격을 선보인다. 신학 작가의 '일렁이다'도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거닐 수 있다. 신 작가의 아버지는 남농 선생의 첫번째 제자 도촌 신영복 선생으로 아버지가 품었던 전통 수목, 아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현대수목 거장들의 평면 수목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호득 작가의 '폭포 I, II'와 강경구 경원대 교수의 '우라라 우라라'다. 필묵을 중심으로 한 전통수목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주요 수목회가의 작품과 첨단매체를 활용한 현대적 수목 작품이 전시, '수목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됐는

가'를 보여준다. 비엔날레2관(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국내 신진작가와 해외작가들의 실험적·모험적 수목작품과 대형수목이 설치됐다. 오직 비엔날레에서만 전시가 가능한 수목의 탈공간화와 탈지역화의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3관(목포연안 여객선터미널갤러리)에서는 전남의 대표 작가 10곳을 수목화와 사진으로 연출했다. 손준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인상 깊다.

비엔날레 4·5·6관이 모여있는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는 남도산수화와 전통산수화의 새로운 해석과 시도를 담은 작품을 전시하여 전통수목을 재발견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 전시관 넘어 광장·학교로= 수목비엔날레는 광장과 전통시장, 학교 등 목포·진도 전례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람객을 찾아 광장으로 나간 프로그램이 '깃발미술제'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린 설치미술이다. 전국 미술대학 및 동호인 300여명이 참여해 2m40cm 높이의 수목깃발 수백개를 만들어 전시장 주변에 설치한다. '수목아트월' 프로그램에도 대학생 작가 300명이 초대됐다.

초·중학생 400여명도 초대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수목교육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수목놀이교실'의 참여 작가들이다. 국내외 작가들이 유희시설을 활용해 체류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시 '국제적수목수다방'은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강사: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잡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